

■ 여의도 칼럼

광고, 빼면 빨수록 커지는 이상한 산수

최윤식/광주대학교 광고정보학과 교수

옛날에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가난뱅이가 있었다. 큰 부자를 찾아가 그 비결을 배우기를 소원했다. 부자는 가난뱅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나무에 매달리게 했다. 그리고 한 손을 떼라고 했다. 두 손으로 매달려 있기도 힘들었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집념으로 한 손을 놓았다. 그러자 남은 한 손마저 놓으라고 했다.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인데 어찌 놓을 수 있겠는가? 그래서 못 놓겠다고 했다. 부자는 죽어도 못 놓겠냐고 물었다. 그렇다고 말했다. “이제부터 돈이든 재물이든 손에 한 번 들어오면 지금처럼 죽어도 놓지 말라”고 했다. 그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었다.

주면 줄수록 크게 돌아오는 사랑

최근에서야 나는 이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깨달았다.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은 음성꽃동네의 오웅진 신부님이였다.

학교 전체 교수 세미나에서의 특강을 통해 그는 이런 행복론을 펼치셨다. “행복이란 ‘만족한 삶’이다. 만족이란 ‘인간 욕구가 충족된 상태’를 말하는데, 그 욕구는 세 가지다. 그 첫째가 소유욕이요, 그 둘째가 지배욕이요, 그 마지막 마지막이 사랑욕이다. 소유욕과 지배욕은 무더위에 마시는 청량음료처럼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. 그 소유욕과 지배욕은 천상천하 모두를 가져도 끝이 없어 욕망의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. 그러나 사랑욕은 주면 줄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이상한 마력을 가지고 있다.”

소년 오웅진은 2~30리 떨어진 친척집으로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. 당시는 가난하던 시절이라 차비만 달랑 주는 게 보통이었다. 그런데 어른을 찾아뵈러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돈도 없고... 오직 방법이라고는 그 차비를 꼭 쥐고 2~30리 길을 뛰는 수밖에 없는 별 도리가 없다. 그 길을 달려가고 그 차비로 눈깔사탕이라도 한 봉지 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친척 어른을 찾아뵈면, “어린아이가 무슨 돈이 있냐? 다시는 이런 거 사오지 말라!”는 꾸지람(?)을 들어야 했다. 그러나 돌아올 때, 삼촌은 삼촌대로 불러서 주머니에 용돈을 찢어주시고 숙모는 숙모대로, 누님은 누님대로 따로 불러서 돈을 주신다는 것이다.

적은 것이 곧 많은 것

그의 말씀은 곧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광고를 내는 사람들에게도 한치의 어김이 없는 진리다.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!(Less is More!) 광고야말로 빼는 것이 곧 더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산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딸 수 없는 요상한 과일이다.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, 저 이야기도 하고 싶고... 불과 15초에 1,000만원 가까운 돈이 날아가니

왜 아니 아까우랴? 그러나 오로지 하나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... 바로 그 이야기만 하라. 최후의 말을 최초로 하라.

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광고주를 설득하느냐 하는 것인데, 그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 더 어렵다. 너무나 자주 광고주들은 하나의 광고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매체에 들인 돈을 더 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. 항상 진실은 그 반대다. 디디비의 키이스 라인하드 회장은 <애니 웬스데이>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, 전세계 디디비 가족들에게 이런 저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낸다. 최근 그의 편지에는 광고주가 욕심을 부리는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. 그것도 새로 한국 디디비의 사장을 맡은 L씨에 관한 내용이어서 흐뭇한 마음으로 읽어본 적이 있다.

그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갈 때 테니스 공을 몇 개 가지고 간다.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중 적당한 때를 골라 광고주에게 자기가 던지는 테니스 공 하나를 받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. 그리고 던진다. 물론 쉽게 받는다. 그러면 이번에는 공 다섯 개를 한꺼번에 던진다. 물론 단 한 개도 받지 못한다. 하지만 그 순간에 이미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분명해졌다. 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극적으로... 광고주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와 얼마나 많이 전달되느냐를 혼동하고 있다면, 다음 회의 때 여러분도 테니스 공 몇 박스를 가지고 가라.

원고가 넘쳤다. 그래서 몇 줄을 잘라야 한다.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어설픈 글 몇 줄조차 빼지 못하고 어떻게 더할 요량을 생각하느라 골치가 아프다. 이런 한심한...